

강진군, 소나무취급업체 등 무단이동 집중단속

강진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 및 소나무류 원목·화목 등의 무단 이동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위적 이동이 주요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관련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감염목 유통 및 불법 이동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제재소, 조정업체, 화목 사용 농가, 캠핑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및 화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확인 ▲조경수 유통 여부 점검 ▲소나무류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관리대장 비치 여부 확인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과 영수증 등을 통한 원목 출처 확인 ▲적치된 화목의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여부 육안 점검 등이다.

특히 군은 목재취급업체와 캠핑장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감염 우려목 반입 금지와 불법 이동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면 반드시 생산확인표 또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해 무단 이동하거나 감염목을 취급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사람에게 의한 감염목 이동이 가장 큰 확산 요인 중 하나인 만큼 목재취급업체 등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예방 활동으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운재 기자



강진군청 전경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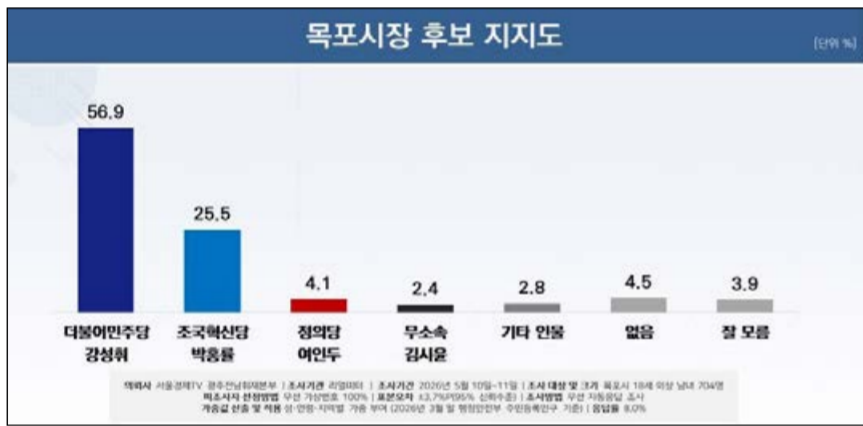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놀이터 '잇다' 시작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병순)은 지난 12일, 관내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놀이터 '잇다' 프로그램의 첫 출발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직접 찾아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존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강사와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여 문화 복지서비스의 손길이 직접 닿기 어려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 소통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행되었다. 오는 11월까지 관내 3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잇다'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 체험을 넘어, 지역내 민관학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은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주민 문화 소외 해소와 활동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용운 기자

강성희 후보 56.9% 선두... “목포 변화 책임자”



목포 시장 후보 지지도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성희 목포시장 후보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6.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경쟁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강 후보는 56.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과반을 넘는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25.5%의 지지를 얻은 조국혁신당 박종률 후보였다. 이어 정의당 여인두 후보가 4.1%, 무소속 김시윤 후보가 2.4%를 기록했다. 기타 인물은

2.8%, 특정 인물을 고르지 않은 응답은 4.5%, '잘 모름'은 3.9%로 집계됐다. 또한 '시장 선거 후보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강 후보가 63.4%를 기록하며 22.3%를 얻은 박 후보를 41.1%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다. 여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3.0%, 2.1%를 기록했다. 이어 “정책 경쟁력과 안정적인 리더십, 미래 비전에 대한 평가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초등학생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전남 함평군 보건소가 성장기 초등학생의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맞춤형 건강 교실을 운영해 눈길을 끈다.

함평군은 12일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초등학생 건강생활실천사업 꿈나무 건강키우기 교실’을 오는 7월 1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학생들이 야외 활동 대

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 소비에 집중하면서 일상 속 신체 활동량이 급감함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성장을 돕고자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순분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강당에서 10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군 담당자와 외부 전문 강사, 운

동 지도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군은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늘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해 성장기 학생들의 전반적인 건강행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도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대단지 아파트 로컬장터 운영...도농상생 직거래 눈길

영암군이 광주 대단지 아파트와 연계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며 도농상생 유통모델 확대에 나섰다.

군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광주 계림아이파크SK뷰 아파트 광장에서 ‘영암군 & 계림아이파크 SK뷰 상생 한마당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농가와 업체

20곳이 참여해 축산물과 장어, 전동주, 무화과빵, 대봉감, 친환경쌀 등 영암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선보였다. 특히 왕인식품과 민물장어수협, 대봉아천꽃감 등 7개 업체가 새롭게 참여하며 품목을 확대했다.

장터를 찾은 주민들은 영암 농특산물을 직접 맛보고 구매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고, 행사 기간 총매출은

7천48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에서는 “영암 농산물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영암군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계림아이파크SK뷰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며 도시 소비자와 지역 농가를 직접 연결하는 도농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문수 기자

신안 옥도, 2026 섬작약꽃 축제 개막

신안군 옥도에서 오는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작약, 인연을 꽃피우다’를 주제로 2026 섬작약 축제가 열린다.

전국 최대 규모인 22.6ha의 작약군락지에는 8개 품종, 약 28만 본의 작약이 만개해 바다와 어우러진 환상적인 꽃섬 풍경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단순 관람에서 벗어나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주요 체험 행사로 △작약 에이드 만들기 △김떡·팡공샌드 만들기 △헬스케어 체험 등이 마련되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관람객 편의를 위해 반월도 큰골 선착장과 옥도 선착장 사이에 여객선을 특별 운영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옥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작약꽃이 어우러진 특별한 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치유와 휴식의 시간을 선사하겠다” 라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